

# 국민의당비대위 “당대표 최대한 빨리 선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 첫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첫 회의 개최... 당헌당규 규제개정위 구성 시스템 정비

###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책 발표... '재벌 개혁' 입법 시동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열어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전당대회 일시를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최대한 당헌·당규 시스템을 정비해서 전대 일정을 앞당기기로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4월 말, 전대를 내년 2월 말 이전 개최하기로 당헌을 개정하면서 그동안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가 유력한 전대 개최 시기로 거론됐다. 그러나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의 사퇴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대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비등해졌다.

국민의당은 또 이날 비대위에서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당헌당규개정위는 비대위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당헌당규 손질과 당원가입·당비 납부시스템·각종 위원회 정비 등을 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원은 저마다 ‘당의 정상화’를 위해 쇄신과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현 당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 “한손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당의 기초공사를 하고, 또 한손에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 국회의 성과를 쥐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여야 3당 모두 비대위 체제인 점을 거론, “국민을 걱정해야 할 정치가 이렇게 모두 비상상황이 돼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한 뒤 “이제는 안철수의 새정치, 전정배의 유능한 개혁정당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하드웨어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승용 비대위원은 “국민께 약속한 새정치를 보여주지 못해 당이 위기에 처했다. 사당화한 뼈 아픈 비판도 받았던 게 사실”이라며 비판적 발언을 하면서도 “비대위는 당을 새로 세우야 하고, 민생도 챙겨야 한다. 당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은희 비대위원은 “정치가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당을 정상화시키고 기초를 튼튼히 해 정치개혁과 정권교체 힘을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당도 총수일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재벌 개혁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단일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규제 대상은 재벌 총수 가족의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즉 상장사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의 지분을 20% 이상인 곳으로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수 일가의 지분을 판단할 때 직접지분뿐 아니라 간접지분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의 경우 제45조3항이 규정하는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으며 소액주주의 피해구제 수단인 다중 대표소송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특강 “한 방 보다 멧집”

### 인천서 첫 강의 활동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첫 외부 특강에서 ‘한 방’보다는 ‘멧집’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안 전 대표는 7일 오전 인천 송도 리마다 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 강연에 참석해 뒤 기자와 만나 “얼마나 강한 편지를 날리느냐보다 강한 편지를 맞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버티서 자기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

다”고 밝혀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 대선까지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안 대표는 또 전당대회를 앞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하고 제안했는데 거대 양당은 반대했다”며 “전당대회를 핑계로 결산 국회를 하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결산을 얼렁뚱땅하고 다시 예산만 손대려고 하는 국회 관행은 정말 좀 없어져야 한다”며 “결산을 제대로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당정청 “추경안 이달까지 처리”

### 20대 국회 첫 회의... 민생·경제법안 처리 협의체 가동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관련 주요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7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10조원 규모로 편성될 추경안과 관련, 당정청은 여야가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정부가 이를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도 이달 말까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당정청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에 대해 “적기에 시행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며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당정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 4개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보완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확대 등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재원은 추경에 따라 늘어나는 교부금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 수석부대표, 정부 측의 황교안 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의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에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고, 황 총리는 오는 18일부터 새누리당 의원들과 5차례에 걸쳐 만찬 간담회를 하겠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야당 의원들과도 만찬 간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의당 최경환 ‘솔직 행보’

### “교부세 8억원 확보 역할 미비... 보도자료 내지 말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정과 관련,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북구 을)의 솔직한 행보가 화제다.

최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북구에 8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것과 관련, 자신의 역할이 미비했다며 보좌진들에게 ‘보도 자료’를 내지 말 것을 지시했다. 대부분의 지역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배정에 대해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며 자화자찬 형식의 보도자료를 경쟁적으로 내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예기치 못한 재원 수요가 발생하면 행정자치부에 신청해 받는 지원금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체장과의 공조 등을 통해 행자



부에 지역구 교부금을 챙겨달라는 읍소성 압박에 나서기도 한다. 행자부도 신청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간의 균형 등을 고려, 특별교부금을 배정

한다. 행자부 출신의 이개호 의원 등은 교부금의 배정 노하우를 잘 알고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특별교부금 배정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도 생색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인 실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당 대표 권한강화... 단일지도체제 확정

### 모바일 투표 도입 않고 ‘컷오프’ 실시... 세비 동결 의결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8·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 대표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컷오프’는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혁신비대위를 통과한 이 지도체제

변경안은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상욱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모바일 투표와 관련 “선거물은 합의가 안 되면 결정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비대위에서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혁신비대위는 여성 최고위원은 현행대로 뽑되 청년 최고위원은 45세 미만인 청년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에 한해 기탁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선관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